

## 20, 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된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이 재 복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졸업

연 규 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된 접근 및 회피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축약형 접근/회피 대처 질문지, 스트레스 사건 평가 척도, 우울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344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 분석 결과,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 대처가 완전 매개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회피 대처를 많이 보임으로써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회피 대처를 적게 보임으로써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접근 대처는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여성, 미묘한 성차별, 대처 전략, 통제가능성, 우울

\* 본 연구는 이재복(2020)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된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36호.

Tel: 02-705-8327, E-mail: [kjyon@sogang.ac.kr](mailto:kjyon@sogang.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예: 강남역 살인사건, 82년생 김지영, 미투 운동)로 부각되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매년 세계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 성별 임금 격차, 성 격차 수준과 같은 성차별 지표에서도 한국은 예년과 같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의 성차별 수준이 심각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OECD, 2021; World Economic Forum, 2019), 한국여성민우회(2017)에서 발표한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93%가 한국이 성평등 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수집된 성차별 사례가 4788건에 달한다.

성차별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 왔다. 그 과정에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여성운동이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는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범이 형성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차별은 보다 은밀하고 미묘해진 형태로 변모하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Derthick, 2015). 해외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90년대부터 미묘한 수준의 성차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Klonoff & Landrine, 1995; Swim, Aikin, Hall, & Hunter, 1995; 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Tougas, Brown, Beaton, & Joly, 1995; Glick & Fiske, 1996).

이러한 연구 동향에 이어, 최근에는 일상에서의 미묘한 차별 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s)이란 개념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Sue와 동료들(2007)이 기존의 미묘한 차별 연구를 체계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Pierce(1974)가 백인이 흑인을 대할 때 나타나는 눈에 두드러지지 않지만 미묘하고 모욕적인 인종차별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용어다. Nadal(2010)은 주로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기존의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을 성차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미묘한 성차별을 의미하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을 “짧고 일상적인 언어, 행동 또는 환경적인 모욕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여성에 대한 적대적, 경멸적, 부정적인 성차별적 경멸과 모욕을 전달하는 것(p.158)”이라고 정의하며, 그 형태가 미묘하여 눈에 잘 띄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차별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련성은 해외 및 국내의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Pascoe & Smart Richman, 2009; 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손인서, 김승섭, 2015), Dumont, Sarlet와 Dardenne(2010)은 미묘한 차별이 기존의 명백한 차별에 비해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정신건강(예: 우울, 불안)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다(김예은, 연구진, 2018; 백근영, 김애란, 2020; Derthick, 2015; Klonoff & Landrine, 1995; Nadal, 2010; Swim et al., 2001).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미묘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문제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담자가 미묘한 차별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이 부족할 경우, 상담 장면에서 소수자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미묘한 차별을 가할 수 있으며(김혜민, 유금란, 2021), 이로 인해 내담자와의 작업 동맹을 손상시키고 상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wen, Tao, Rodolfa, 2010). 이에 대해 Swim과 동료들(2001)은 개인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차별을 감소시키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 안에서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문제의식을 증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20, 30대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관심을 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20, 30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성차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차별의 대표적인 예인 성적 대상화는 주로 성인 초기의 “젊은 여성”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손은정(2011)에 따르면, 20, 30대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즉 성적 대상화의 영향으로 인해 40, 50대 여성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 비교 및 자기 감시를 현저히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 30대 여성들은 타 연령층의 여성들에 비해 성차별을 가장 높은 빈도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권기석, 2018), 본 연구에서는 20, 30대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 특

히 우울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울은 일상 속 스트레스 경험으로 유발되는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며, 우울증의 유병률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김진이, 2009; Kessler et al., 2005). Klonoff, Landrine, Campbell(2000)은 이러한 유병률 차이의 원인으로 빈번한 일상적 성차별과 같이 여성들이 부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웅과 임란(2014) 또한, 우울증이 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이자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개념화하며, 개인이 지각하는 불공정성이나 박탈 경험, 차별 등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차별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권력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여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묘한 차별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는 대처 전략을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적응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과정의 핵심 기제로 강조한다(Lazarus, 1993; Lazarus & Folkman, 1984; Moos & Schaefer, 1993). 즉,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적응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처 전략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미묘한 차별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Miller와 Kaiser(2001)는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며, 사회적 지위로부터 파생된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을 정립한 Sue와 동료들(2007) 또한, 미묘한 차별 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기제로 대처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미묘한 차별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규범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차별 가해자가 쉽게 둘러댈 수 있게 하고, 차별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쉽게 묵살하거나 피해를 경험한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경험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침묵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e & Sue, 2008). 이처럼 미묘한 차별 경험과 개인의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대처 전략이 핵심 기제로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앞서 실증 연구들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Liang, Alvarez, Juang, & Liang, 2007; Sanchez, Adams, Arango, Flannigan, 2018;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채향화, 2011).

이러한 기제는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개인은 대처 행동에 따른 위험과 비용, 그리고 이득을 평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Ayres, Friedman, & Leaper, 2009; Kaiser & Miller, 2004), 성차별적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이 미묘한 성차별에 직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한다 (Sue et al., 2007). 이는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차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소수자들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lark, Anderson, Clark., & Williams 1999; Kaiser & Miller, 2004). 그 결과, 개인이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수 있으며(Nadal, Hamit, Lyons, Weinberg, & Corman, 2013), Bianchi, Zea, Poppen, Reisen와 Echeverry(2004) 또한 개인이 반복적으로 차별 상황에 노출되면 무력감과 체념을 경험함으로써 접근적인 방식의 대처보다는 수동적인 대처를 더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성차별 수준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성차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2017년 사이에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2190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으며(배혜정, 2017), 한국여성노동자회 외(2017)의 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57%가 불이익이 있었고 72%가 해당 직장을 더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여성들은 성차별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높은 위험부담을 수반하고, 성차별 경험이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성차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적인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처 전략에 따른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접근적 대처가 회피적 대처보다 적응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orsythe & Compas, 1987; Suls & Fletcher, 1985), 접근적 대처에 포함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은 증진한다고 알려져 있다(김나미, 김신섭, 2013; 이자영, 최응용, 2012; Cohen & Wills, 1985). 특히, 회피적 대처는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 등의 부적응적 지표들과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된다(Hudek-Knezevic,

Kardum, & Maglica, 2005). 그러나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의 효과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는 한계가 있다(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Lazarus(1993)은 보편적으로 좋거나 나쁜 대처 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대처 전략과 그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초점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 예로, 회피 대처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며(Dempsey, Stacy, & Moely, 2000; Duncan, 1996), 상황에 따라 회피가 단순한 철수가 아닌 가용한 대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다(Cohen & Swim, 1995).

지금까지 차별 상황에 초점을 둔 대처 전략의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같은 접근적 대처는 높은 긍정 정서, 낮은 부정 정서, 높은 삶의 만족도 등의 적응적인 결과와 관련되며, 이에 반해 정서중심 대처나 회피적 대처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rockett et al., 2007; Krieger, 1990; Noh & Kaspar, 2003; 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 Yoo & Lee, 2005).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은 인종차별 상황에 국한되어 있으며,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진민진 등, 2011) 외에는 진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의 20, 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주목하여,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 전략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대처 전략의 관계는 그 상황을 얼마나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대처 이론에서는 개인의 대처 행동이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지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Lazarus, 1993). 인지적 평가는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차적 평가는 당면한 사건이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이차적 평가는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이 통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Carpenter, 2016).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는 이차적 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이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관련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가능성 평가에 따라 대처 전략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Compas, Banez, Malcarne, & Worsham, 1991; Gamble, 1994; 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Thurber & Weisz, 1997), 구체적으로는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할 경우 덜 회피적이고 더 접근적인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ianchi et al., 2004;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Hofmann, 2005; Moos & Schaefer,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전략의 관계가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전략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통제가능성 평가 정도를 함께 탐색하는 것은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통제가능성 평가 과정은 개인 내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강병철, 2011). 즉, 통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Brown, 1993; Taylor, Kemeny, Reed, & Aspinwall, 1991). 대처 자원은 개인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Lazarus & Folkman, 1984; 이성원, 연구진, 2020), 가용 자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가능성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강병철, 2011).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해보면, 여성이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정도를 높게 평가할 때, 차별 경험에 더욱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차별 경험으로 인

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대처 전략의 관계에서 통제가능성이 조절효과를 보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때,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접근 대처는 더 많이 보이고 회피 대처는 더 적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차별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의 관련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주아몽, 2019; 채향화, 2011), 특히 성차별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통제가능성 평가 정도에 따라 접근 및 회피 대처 전략의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미묘한 성차별과 개인의 우울 수준의 관계에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된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20, 30대 여성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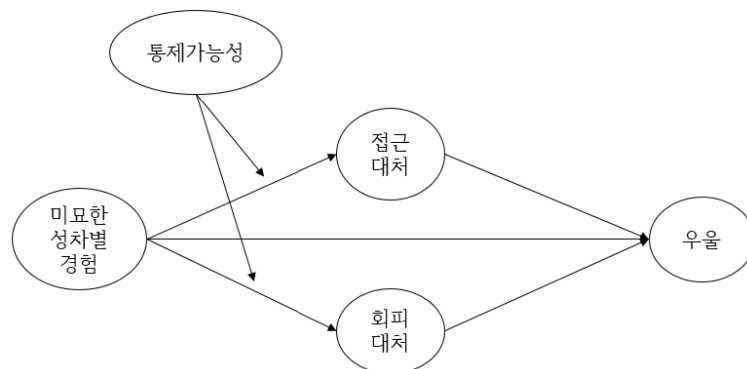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험하는 미묘한 성차별과 개인의 우울 수준의 관계에서 대처전략(접근 대처, 회피 대처)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매개효과가 차별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참여자가 경험한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대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 구성 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척도를 대처 전략 척도 이전에 제시하였고, 대처 전략 척도 응답 시 참여자가 앞서 응답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서베이몽키(surveymonkey)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377명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이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는지 변별하기 위한 2개의 타당도 문항(예: 본 문항은 “전혀 하지 않았음”에 체크해주세요)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32명과 성별이 여성이 아닌 응답자 1명을 제외하여 총 344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 구성은 연구 설명서 및 참여 동의서를 제시한 후,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축약형 접근/회피 대처 질문지, 우울 척도, 스트레스 사건 평가 척도, 인구통계학적 정보 순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축약형 접근/회피 대처 질문지와 스트레스 사건 평가 척도의 경우, 참여자가 경험한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의

대처 전략과 통제가능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시문을 통해 “앞서 응답한 경험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344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나이는 최저 20세에서 최고 39세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7.2세(SD=4.22)였다. 성별은 여성이 344명(100%)으로 여성이 아닌 응답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비혼(미혼)이 308명(89.5%), 기혼이 25명(7.3%), 동거가 11명(3.2%)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221명(64.2%)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76명(22.1%), 천주교 34명(9.9%), 불교 10명(2.9%), 기타 3명(0.9%)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162명(47.2%), 사무/관리직 93명(27.0%), 전문직 32명(9.3%), 무직 32명(9.3%), 서비스직 20명(5.8%), 자영업 4명(1.2%), 기타 1명(0.3%)이었다. 본인이 지각한 경제적 수준은 상이 9명(2.6%), 중상 77명(22.4%), 중 166명(48.3%), 중하 79명(23.0%), 하 13명(3.8%)이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대학 재학 포함)가 97명(28.2%)이었고, 전문대학교 졸업이 26명(7.6%),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82명(52.9%), 석사 졸업 37명(10.8%), 박사 졸업 2명(0.6%)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187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1명(29.4%), 경상도 28명(8.1%), 인천 16명(4.7%), 충청도 7명(2.0%), 전라도 5명(1.5%)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일

상 속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하(2018)가 개발 및 타당화 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고, 여성에게 부과되는 고정관념적 성역할(예: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 전통적 가사 의무 이행, 결혼,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요인은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외모를 여성의 주요 가치로서 강조하는 개인의 발언이나 언론, 광고 등 대중매체의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1=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5=매우 자주 경험했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김은하(2018)의 연구에서 총 문항 .933, 요인1 .917, 요인2 .90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 문항 .893, 요인1 .876, 요인2 .672로 나타났다.

**축약형 접근/회피 대처 질문지(Brief Approach/Avoidance Coping Questionnaire: BACQ)**

본 연구에서는 대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대처를 접근/회피 차원으로 구분한 Roth와 Cohen(1986)의 분류체계를 따라 Finset, Steine, Haugli, Steen와 Laerum(2002)이 개발한 축약형 접근/회피 대처 질문지(Brief Approach/Avoidance Coping Questionnaire; BAC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처를 접근 대처와 회피 대처로 구분하고 있으며, 회피 대처는 세부적으로 주의 돌리기(Diversion)와 체념 및 철회(resignation and

withdrawal)로 구성되었다. 문항 수는 접근 대처와 회피 대처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를 역변안 절차에 따라(임은영, 1999)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Finset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서는 총 문항 .68, 접근 대처 6문항 .59, 회피 대처 6문항 .5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문항 .63, 접근 대처 6문항 .653, 회피 대처 6문항 .612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피 대처 6문항 중 1문항(“일에 몰두했다”)이 전체 회피 대처 차원의 문항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본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가 .714로 .10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의 총 문항 신뢰도는 .694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사건 평가 척도(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Peacock과 Wong(1990)이 개발하고 설지운(2018)이 번안한 스트레스 사건 평가 척도(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스트레스 교류모델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를 일차적 평가와 이차적 평가로 구분한다. 일차적 평가는 위협, 도전, 중심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차적 평가는 자기에 의한 통제가능성, 타인에 의한 통제가능성, 사건의 통제 불가능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각 하위요인당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SAM에서 대처전략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 평가에 해당하는 3개의 하위요인만을 측정하였다. He와 Wong(2015)은 SAM의 이차적 평가에 해당하는 세 하위요인 12문항을 하나의 통제가능성 요인으로 통합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이차적 평가에 해당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를 구인하여 분석하였다. SAM의 이차적 평가에 해당하는 세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설지윤(2018)의 연구에서 자기통제 .86 타인통제 .88 통제불가능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82 타인통제 .83 통제불가능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통제가능성의 총 12문항 신뢰도는 .864로 나타났다.

####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친 통합적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게 개발된 척도로서,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의 빈도를 평가한다. 문항 수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0=극히 드물게(1일 이하), 3=거의 대부분(5~7일)) 척도로 측정된다. 총 20문항 중 4문항(예: “행복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은 긍정적인 경험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

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M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하였다. Kline(2011)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ML) 방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Curran, West와 Finch(1996)이 제시한 기준인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음으로써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추정 방식을 최대우도추정(ML) 방식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고, 측정모형이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임에 따라 두 번째 단계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은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변수들의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지표변수를 구성하여 각 잠재변수를 구인하였다. 문항 묶음의 방식은 김수영(2016)의 제안에 따라, 요인의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하는 접근 대처, 우울은 요인 알고리즘 방

식(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을,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 회피 대처, 통제가능성은 내용 기반 알고리즘 방식(이지현, 김수영, 2016)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수의 연구자들(Boomsma, 2000; Kline, 2011; West, Taylor, & Wu, 2012; 김수영, 2016)이 제안한 바에 따라  $\chi^2$ , CFI, RMSEA, SRMR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hi^2$  검정을 통해 모형이 유의수준 .05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거나 CFI 값이 0.90보다 크고 RMSEA 값이 0.10보다 작으며, SRMR 값이 0.08보다 작은지(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홍세희, 2000) 확인하였으며, 각 문항 묶음의 수렴 타당도가 0.4 이상(Wang & Wang, 2012)이고 변별 타당도가 0.9 이하(Kline, 2011)인 경우에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Mplus 7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Cheung과 Lau(2017)는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정할 때, 다음 세 단계를 따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연구 모형에서 잠재 상호작용항이 제외된 기저모형을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둘째, 기저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할 경우, 잠재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연구 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정한다. 셋째, 조절된 매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세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를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Pearson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변인을 측정할 적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산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접근 대처, 통제가능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회피 대처( $r=.182, p<.01$ ), 우울( $r=.205, p<.001$ )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접근 대처는 회피 대처( $r=-.197, p<.001$ ), 우울( $r=-.332, p<.001$ ), 통제가능성( $r=.550,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피 대처는 우울( $r=.527, p<.001$ ), 통제가능성( $r=-.431,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과 통제가능성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560, p<.001$ ). 이처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접근 대처, 통제가능성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중 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Curran, West, & Finch, 1996)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또한 모든 척도가 .6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Nunally, 1978)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자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344)

	1	2	3	4	5
1 미묘한 성차별 경험	-				
2 접근 대처	-.054	-			
3 회피 대처	.182**	-.197***	-		
4 우울	.205***	-.332***	.527***	-	
5 통제가능성	-.099	.550***	-.431***	-.560***	-
평균	47.58	24.42	17.18	21.54	41.67
표준편차	10.22	4.24	4.40	11.79	7.37
왜도	-.295	-.163	-.184	.583	-.376
첨도	-.367	-.132	-.060	-.025	.369
신뢰도	.893	.653	.714	.931	.864

주. \* $p < .05$  \*\* $p < .01$  \*\*\* $p < .001$

### 측정모형 검정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chi^2$  검정을 제외한 CFI, RMSEA, SRMR 지표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chi^2=209.053$  ( $df=56$ ),  $p < .001$ , CFI=0.926 RMSEA=0.089, SRMR=0.062).  $\chi^2$  검정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홍세희, 2000)을 고려했을 때, 다른 세 지표를 근거로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또한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수렴타당도, 즉 각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지표변수들의 요

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지표변수들의 요인 부하가 0.4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Wang & Wang, 2012)을 보였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변별타당도 또한 모두 0.9 이하로 적절한 수준(Kline, 2011)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추정치는 표 3과 표 4,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때, 본 측정모형 검정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첫 번째 문항 묶음에서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오차 분산값 지정 방식을 통해 추정의 오류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요인에서 이와 같은 추정의 오류가 발생한 것은 요인을 구인하는 문항 묶음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할 때, 각 잠재변수를 몇 개의 문항 묶음을 통해 구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나, Little과 동료들(2002)은 요인당 2~4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하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N=344)

$\chi^2$	$df$	CFI	RMSEA	SRMR
209.053	56	0.926	0.089	0.062

표 3.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N=344)

	표준화 추정치
미묘한 성차별 경험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0.996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0.713
접근 대처	
접근 대처1	0.560
접근 대처2	0.684
접근 대처3	0.446
회피 대처	
체념 및 철회	0.935
주의 돌리기	0.419
우울	
우울1	0.903
우울2	0.877
우울3	0.936
통제가능성	
자기통제	0.805
통제불가능성	0.576
타인통제	0.747

주. 위 추정치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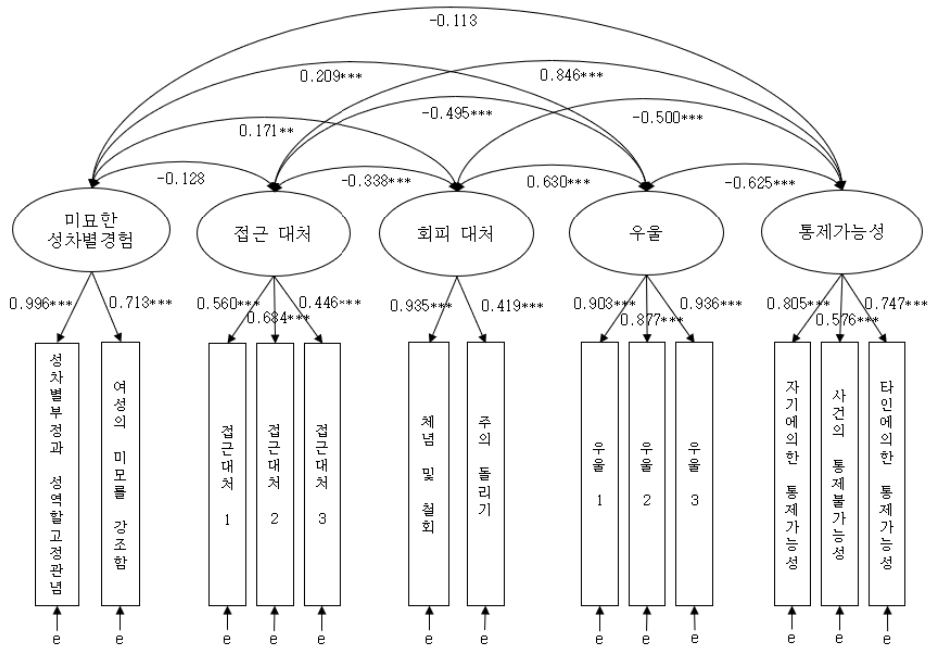
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항 묶음의 수가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향상되지만, 동시에 추정의 편향(bias)이 증가하고 추정의 안정성이 나빠진다는 단점이 있다(Bandalos, 2002;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Rogers & Schmitt, 2004). 이러한 점에서, Little과 동료들(2013), Matsunaga(2008) 등의 연구자들은 요인당 세 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하는 것이 추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표 4.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 (N=344)

	표준화 추정치
미묘한 성차별 경험	
↔ 접근 대처	-0.128
↔ 회피 대처	0.171**
↔ 우울	0.209***
↔ 통제가능성	-0.113
접근 대처	
↔ 회피 대처	-0.338***
↔ 우울	-0.495***
↔ 통제가능성	0.846***
회피 대처	
↔ 우울	0.630***
↔ 통제가능성	-0.500***
우울	
↔ 통제가능성	-0.625***

주. \* $p < .05$  \*\* $p < .01$  \*\*\* $p < .001$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문항 묶음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개수인 두 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할 경우, 헤이우드 케이스와 같은 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요인은 척도의 하위요인과 동일한 수의 문항 묶음을 구성해야 하는 내용기반 알고리즘 방식(김수영, 2016)을 사용하였는데,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할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GM)의 하위요인이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문항 묶음으로 구인해야만 했다. 즉, 추정 오류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정확한 방식의 모형 설정을 위해 2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하였고, 헤이우드



(\*p<.05 \*\*p<.01 \*\*\*p<.001)

그림 2. 측정모형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케이스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자들은 이처럼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 오차 분산값을 0에 가까운 양의 값(예: 0.005 혹은 0.001)으로 고정하여 오류를 조정함으로써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계수, 2010; 김수영, 2016; 문수백, 2009; 배병렬, 2018; Arbuckle, 2005). 이러한 조정 방식은 여러 선행연구(예, 김혜인, 도현심, 지연경, 2011; 박주희, 신현숙, 2014; 양한나, 2017; 김문주, 전민희, 성경일, 김영주 (2016)의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 요인의 첫 번째 문항 묶음에 대해 오차 분산값 지정방식을 사용하여 오류를 조정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 구조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된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은 Cheung과 Lau(2017)가 제안한 세 단계를 따라 진행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연구 모형의 기저모형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6.987(df=58)$ ,  $p<.001$ ,  $CFI=0.923$ ,  $RMSEA=0.089$ ,  $SRMR=0.066$ ).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기저모형의 적합도 (N=344)

$\chi^2$	df	CFI	RMSEA	SRMR
216.987	58	0.923	0.089	0.06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기저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잠재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과 그림 3은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 검증 결과를, 표 7은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추정된 결과이다.

연구 모형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통제가능성의 잠재상호작용항은 접근 대처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고 ( $p>.05$ ), 회피 대처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p=.003$ ).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회피 대처의 정적 관계가 통제가능성에 의해 완화되는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처 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접근 대처는 -0.395의 부적 영향을, 회피 대처는 0.262의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p<.000$ ).

표 6.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 검증 결과

(N=344)	
준거 변인: 접근 대처	
경로 계수	
미묘한 성차별경험	-0.024
통제가능성	0.734***
미묘한 성차별경험 x 통제가능성	-0.021
준거 변인: 회피 대처	
경로 계수	
미묘한 성차별경험	0.154*
통제가능성	-0.713***
미묘한 성차별경험 x 통제가능성	-0.322**
준거 변인: 우울	
경로 계수	
미묘한 성차별경험	0.051
접근 대처	-0.395***
회피 대처	0.262***

주.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모형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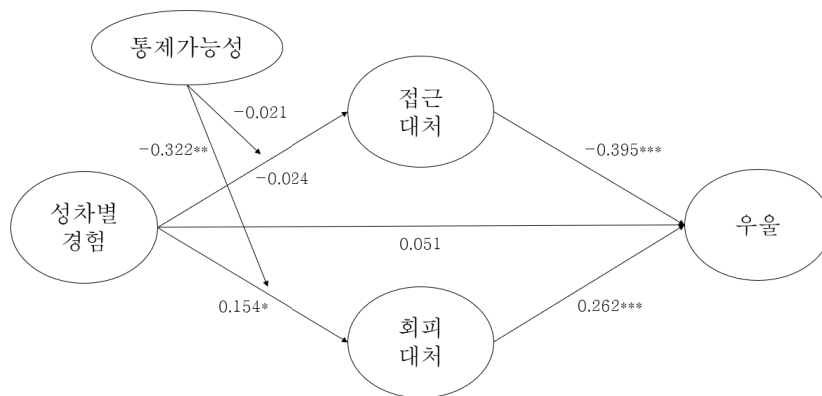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 검증 결과 (N=344)

표 7.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N=344)

매개효과	
	추정치
미묘한 성차별경험 → 접근 대처 → 우울	0.009
미묘한 성차별경험 → 회피 대처 → 우울	0.040*
조절된 매개효과	
	추정치
조절된 매개효과(접근 대처)	0.008
조절된 매개효과(회피 대처)	-0.084**

주. \*p<.05 \*\*p<.01 \*\*\*p<.001

의 관계에서 대처 전략이 보이는 매개효과와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제가능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위의 표 7과 같다. 우선,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접근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 $p>.05$ ). 이에 반해 회피 대처는 추정치 0.0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 $p=.042$ ).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회피 대처를 많이 보임으로써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피 대처의 매개효과는 통제가능성에 의해 조절되었다. 회피 대처 경로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0.084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p=.009$ ). 회피 대처 경로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마지막 단계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회피 대처의 매개

효과는 통제가능성이 -1SD, 평균 수준일 때는 양의 부호를 갖지만 +1SD, 수준에서는 음의 부호를 갖는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통제가능성이 낮은 수준일 때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회피 대처를 더 많이 보임으로써 우울 수준을 더욱 높아지게 하고, 통제가능성이 높은 수준일 때는 회피 대처를 보다 적게 함으로써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이러한 변화 추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통제가능성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 추정치(회피 대처)

통제가능성 수준	추정치
-1SD	0.091
평균	0.040
+1SD	-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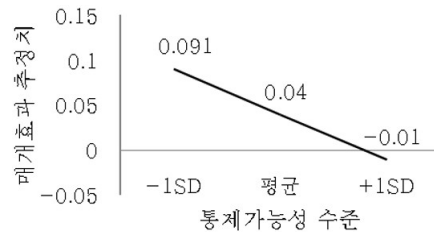


그림 4. 통제가능성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 변화 추세(회피 대처)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20~39세 여성 344명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된 대처 전략(접근 대처, 회피 대처)이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모

형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회피 대처를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매개 효과는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조절된 매개 효과는 회피 대처 경로에서만 나타났고, 접근 대처 경로에서는 유의한 매개 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회피 대처 경로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완전 매개하였다. 즉,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회피 대처 수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Derthick, 2015; Nadal et al., 2013)와 일관된 결과이며, 여성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성차별 경험의 영향을 강조한 Klonoff와 동료들(200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차별 상황에 반복 노출되면 무력감과 체념을 경험함으로써 회피적인 대처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Bianchi et al., 2004)의 설명을 지지한다.

한편, 일부 스트레스-대처 관련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대처 전략의 효과가 당면한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Lazarus, 1993), 회피적 방식의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용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Cohen & Swim, 199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에 회피적인 방식으로 대처할수록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스트레스-대처 관련 연구 결과(Billings & Moos, 1981; Hudek-Knezevic et al., 2005; Pearlin &

Schooler, 1978)와 일관되게,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피 대처가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으로써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회피적 대처 전략이 매개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진민진 등, 2011)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회피 대처 경로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묘한 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회피적 방식의 대처를 더 보임으로써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데, 당면한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통제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경우에는 회피 대처를 보다 적게 보임으로써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고, 반대로 통제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경우에는 더욱 회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Lazarus & Folkman, 1984), 통제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덜 회피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 연구(Hofmann, 2005; Lazarus, 1993)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접근 대처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특별히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접근 대처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Sanchez 등(2018)의 연구에서 미묘한 차별 경험이 접근적 방식의 대처를 매개하여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접근 대처의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에



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접근 대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 변인의 혼입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물러나는 방식의 회피 대처와는 달리,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처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묘한 차별 상황에서 개인은 대처 행동에 따른 위험과 비용, 그리고 이득을 평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Ayres et al., 2009), 특히 여성들이 일상 속 성차별 상황에 직면적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직면의 결과로 발생하게 될 대인관계적 비용과 실제 성차별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의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Kaiser & Miller, 2004). 한국 사회는 특히 성차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이 성차별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더라도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접근적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예: 미묘한 차별 경험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도, 접근적 대처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이 더욱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일부 여성들은 성차별 경험에 대해 통제가능성을 높게 지각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직면의 결과로 상황이 개선되거나 이후 차별이 줄어들어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배혜정, 2017;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2017), 그 결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접근적 대처를 취하기 어려워졌을 수 있고, 접근적 대처를 취했다 하더라도 심리적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적 대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 대한 인식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고(Swim et al., 2001), 접근적 대처 전략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으나(Sue et al., 2019), 근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차별 경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문제 제기에 따른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문제상황에서 여성들이 접근적 대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과 대처 전략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질적연구를 통해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 대해 직면적이고 접근적 방식의 대처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실제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대처 전략 선택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 대처가 완전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Lazarus(1993)가 제안한 바와 같이, 대처 전략이 스트레스 사건과 그로 인한 정서 반응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기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경우, 단순히 차별을 많이 경험해서 우울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성차별 경험에 대해 얼마나 회피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회피 대처를 완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 평가가 보호요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통제가능성 평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적, 환경적 자원과 그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다(Peacock & Wong, 1990). 따라서, 여성이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통제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적, 환경적 자원을 증진하여 미묘한 성차별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새로운 상담 패러다임으로써 주목받는 사회정의 옹호 상담(Social Justice Advocacy Counseling)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정의 옹호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억압적 환경 속에서 내담자가 더욱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Empowerment), 실제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Lewis, Arnold, House & Toporek, 2003; Toporek, Lewis, & Crethar, 2009). 이를 본 연구 결과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상담 현장의 전문가들은 여성의 우울에 억압적 사회구조로부터 파생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미묘한 성차별과 그 이면의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담 현장의 전문가들은 여성 내담자가 차별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과 권력을 증진하도록 도움으로써(Worell & Remer, 2002) 미묘한 성차별에 회피

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20,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여성의 우울을 유발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용과 임란(2014)은 우울증을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개념화하며, 차별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Sue와 Sue(2008) 또한, 다문화 상담의 관점에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도 여성 내담자의 우울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같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상담자는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통제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내담자의 개인적 자원 및 권력 강화를 통한 통제감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적 자원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Green, McCollum, & Hays, 2008; Toporek et al., 2009). 이러한 사회정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소수자 지위를 갖는 내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자의 활동을 옹호(Advocacy)라고 한다(Lewis et al., 2003). 사회정의 옹호는 다문화 상담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옹호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내담자가 생활 속에서 통

제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McWhirter, 1994). 즉,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함으로써 차별 경험에 대해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내담자의 통제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보다 많은 상담자들에 의해 사회정의가 실천될수록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차별 경험을 관계 속에서 지지받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차별을 가장 높은 빈도로 경험하는 연령대인 20, 30대 여성(권기석, 2018; 박기남, 2011; 손은정, 2011)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89.5%의 참여자가 비혼(미혼)이라는 점에서도 결혼 여부에 따른 미묘한 차별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여성이 일상을 보내는 생활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 흐름으로 인해 20대와 30대 여성 간에도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20대와 30대는 취업,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있어서 다양한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더욱 초점화된 대상자 선정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서, 대처 전략과 통제가능성 평가라는 개인적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노력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적 요인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것은 미묘한 차별 경험이 사회적 맥락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차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과 그 영향에 대해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처 전략의 측정에 있어서, 미묘한 성차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도구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Meyer (2003)는 사회적으로 소수자 지위를 갖는 개인이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는 일반적 스트레스와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며, 차별이 대체로 개인의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기반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미묘한 성차별과 같은 소수자 지위로부터 기인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양상은 일반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일반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의 관련성을 이해한 것이 한계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대처 전략 척도는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관련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미묘한 성차별에 연구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해로움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차별 근절을 향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Swim et al., 2001)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권기석 (2018. 12. 17). 어리다고... 여자라고... 한국사회 '젊은 여성' 차별에 운다.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924242>에서 인출.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나미, 김신섭 (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문주, 전민희, 성경일, 김영주 (2016). 청보리 생산량의 기후요인 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구조방정식 모형. *응용통계연구*, 29(2), 331-344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예은, 연규진 (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99-523.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김진이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25-55.
-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10. 2).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보이시나요?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7>에서 인출.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배병렬 (2018). Amos 24 고급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배혜정 (2017. 11. 10). [직장내 성범죄에 반대한 노동부?] 성희롱 진정 2천190건 중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고작 9건.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897>에서 인출.
- 백근영, 김애란 (2020). 제한 중국 여자 유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경험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

- 담 및 심리치료, 32(4), 1615-1646.
- 설지윤 (2018). 대인 간 외상 경험에 관한 글쓰기의 효과: 자서전적 기억 특성,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11). 성인기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신체상 및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57-377.
- 손인서,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이성원, 연구진 (2020). 성소수자 (LGB) 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39-666.
- 이웅, 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 이자영, 최용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임은영 (1999). 타문화권 태도척도 번안에서 역번역절차의 중요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주아몽 (2019). 차별 경험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83-797.
- 채향화 (2011).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통제감,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재한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14개 단체 (201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http://equaline.or.kr/board\\_oPBq50/273816](http://equaline.or.kr/board_oPBq50/273816)에서 인출
- 한국여성민우회 (2017). 2017 성차별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19433>에서 인출.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rbuckle, J. L., & Wothke, W. (2005). *Amos 6.0 user's guide*. Chicago, IL: SPSS. Bentler, PM, & Bonett, DG.
- Ayres, M. M., Friedman, C. K., & Leaper, C. (2009). Individual and situational factors related to young women's likelihood of

- confronting sexism in their everyday lives. *Sex roles*, 61, 449-460.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ianchi, F. T., Zea, M. C., Poppen, P. J., Reisen, C. A., & Echeverry, J. J. (2004). Coping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sociocultural factors on health behavior among HIV-positive Latino gay men. *Psychology & Health*, 19(1), 89-101.
-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2), 139-157.
-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3), 461-483.
- Brown, J. D. (1993). Coping with stress: The beneficial role of positive illusions. In A. P. Turnbull, J. M. Patterson, S. K. Behr, D. L. Murphy, J. G. Marquis, & M. J. Blue-Banning (Eds.), *Cognitive coping, families and disability* (pp. 123-133). Baltimore: Brooke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Long JS, editor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Beverly Hills, CA: Sage, 111-135.
- Carpenter, R. (2016). A review of instruments on cognitive appraisal of stres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0(2), 271-279.
- Clark, R., Anderson, N. B., Clark, V. R., & Williams, D. R. (1999). Racism as a stressor for African Americans: A biopsychosoci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54, 805-816.
- Cohen, L. L., & Swim, J. K. (1995). The differential impact of gender ratios on women and men: Tokenism, self-confidence, and expect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876-88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Compas, B. E., Banez, G. A., Malcarne, V., & Worsham, N. (1991).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with Str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47(4), 23-34.
- Cheung, G. W., & Lau, R. S. (2017). Accuracy of parameter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in moderated mediation models: A comparison of regression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4), 746-769.
- Crockett, L. J., Iturbide, M. I., Torres Stone, R. A., McGinley, M., Raffaelli, M., & Carlo, G. (2007).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Relations to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 347-35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empsey, M., Stacy, O., & Moely, B. (2000). "Approach" and "avoidance" coping and PTSD symptoms in innercity youth. *Current*

- Psychology*, 19(1), 28-45.
- Derthick, A. O. (2015). *The sexist mes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exist microaggressions experiences and stress scale and the relationship of sexist microaggressions to women'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에서 인출. (3740179).
- Dumont, M., Sarlet, M., & Dardenne, B. (2010). Be too kind to a woman, she'll feel incompetent: Benevolent sexism shifts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toward incompetence. *Sex Roles*, 62(7-8), 545-553.
- Duncan, D. F. (1996). Growing up under the gun: Children and adolescents coping with violent neighborhood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6(4), 343-356.
- Finset, A., Steine, S., Haugli, L., Steen, E., & Laerum, E. (2002). The brief approach/avoidance cop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health & medicine*, 7(1), 75-85.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
- Forsythe, C. J., & Compas, B. E. (1987). Interaction of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ful events and coping: Testing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4), 473-485.
- Gamble, W. C. (1994). Perceptions of controllability and other stressor event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coping among you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65-84.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o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reen, E. J., McCollum, V. C., & Hays, D. G. (2008). Teaching advocacy counseling within a social justice framework: Implications for school counselors and educators. *Journal for Social Action in Counseling & Psychology*, 1(2), 14-30.
- He, W. J., & Wong, W. C. (2015). Creativity slump and school transition stress: A sequential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gnitive-relational theory of stres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85-190.
- Hofmann, S. G. (2005). Perception of control over anxiet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catastrophic thinking and social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7), 885-89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dek-Knežević, J., Kardum, I., & Kalebić Maglica, B. (2005). The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yles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physical symptoms. *Review of psychology*, 12(2), 91-101.
- Kaiser, C. R., & Miller, C. T. (2004) A stress and

- coping perspective on confronting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168-178.
- Kessler, R. C., Berb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Klonoff, E. A., Landrine, H., & Campbell, R. (2000). Sexist discrimination may account for well-known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93-99.
- Krieger, N. (1990).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risk factors for high blood pressure?. *Social science & medicine*, 30(12), 1273-128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 Lewis, J., Arnold, M., House, R., & Toporek, R. (2003).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dvocacy competencie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iang, C. T., Alvarez, A. N., Juang, L. P., & Liang, M. X. (2007). The role of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acism and racism-related stress for Asian Americans: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32.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cWhirter, E. H. (1994). *Counseling for empowerment*.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oos, R. H., & Schaefer, J. 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 & Breznitz(2nd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234-257). NY: Free Press.
- Miller, C. T., & Kaiser, C. R. (2001).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oping With Stigma.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73-92.
- Nadal, K. L. (2010). *Gender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M. A. Paludi (Ed). *Feminism and women's rights worldview* (pp. 155-175). Santa Barbara, CA: Praeger.
- Nadal, K. L., Hamit, S., Lyons, O., Weinberg, A., & Corman, L. (2013). Gender



- microaggressions: Perceptions, processes, and coping mechanisms of women. In M. A. Paludi (Ed.), *The psychology of business success* (pp. 193-220). Santa Barbara, CA: Praeger.
- Noh, S., & Kaspar, V.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32-238.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 Hill.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1). *Gender wage gap* (indicator).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에서 인출.
- Owen, J., Tao, K., & Rodolfa, E. (2010). Microaggressions and women in short-term psychotherapy: Initial evid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923-946.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
- Peacock, E. J., & Wong, P. T. (1990). The stress appraisal measure (SAM):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cognitive appraisal. *Stress medicine, 6*(3), 227-236.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1.
- Pierce, C. (1974). Psychiatric problems of the Black minority.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 512-52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gers, W. M., & Schmitt, N. (2004). Parameter recovery and model fit using multidimensional composites: A comparison of four empirical parceling algorithm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3), 379-412.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7), 813.
- Sanchez, D., Adams, W. N., Arango, S. C., & Flannigan, A. E. (2018). Racial-ethnic microaggressions, 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in Asian American and Latinx American college students: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2), 214-225.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
- Sue, D. W., Alsaedi, S., Awad, M. N., Glaeser, E., Calle, C. Z., & Mendez, N. (2019). Disarming racial microaggressions: Microintervention strategies for targets, White allies, and bystanders. *American Psychologist, 74*(1), 128.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 271-286.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

- New York, NY: Wiley.
- Suls, J., & Fletcher, B. (1985).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3), 249.
- Swim, J., Aikin, K., Hall, W., & Hunter,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Taylor, S. E., Kemeny, M. E., Reed, G. M., & Aspinwall, L. G. (1991). Assault on the self: Positive illusions and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pp. 239-254). New York, NY: Springer.
- Thurber, C. A., & Weisz, J. R. (1997). "You can try or you can just give up": The impact of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style on childhood homesick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508.
- Toporek, R. L., Lewis, J. A., & Crethar, H. C. (2009). Promoting systemic change through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3), 260-268.
- Tougas, F., Brown, R., Beaton, A. M., & Joly, S. (1995). Neosexism: Plus Ça Change, Plus C'est Parei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8), 842-849.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Wiley.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H.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West, S. G., Taylor, A. B., & Wu, W. (2012). Model fit and model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209-231.
- Worell, J., & Remer, P. (200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Empowering diverse women*. John Wiley & Sons.
- World Economic Forum. (2021).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에서 인출.
- Yoo, H. C., & Lee, R. M. (2005). Ethnic identity and approach-type coping as moderators of the racial discrimination/well-being relation in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27-442.

원 고 접 수 일 : 2022. 08.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0. 04

게재결정일 : 2022. 10. 18

## The Effect of Gender Microaggressions on Depress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ping Strategy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Events

Jaebok Lee<sup>1)</sup>

Kyu Jin Yon<sup>2)</sup>

<sup>1)</sup>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Master's Degree

<sup>2)</sup>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the mediation effect of approach and avoidance coping strategies moderated by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events in the relation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and depression. Survey was conducted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and included the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the Brief Approach/Avoidance Coping Questionnaire, the Stress Appraisal Measure,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344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it was adequate.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avoidance coping fully mediated the effect of gender microaggressions on depression, and that mediation effect was moderated by the perceived controllability. Specifically, the increased experience of gender microaggressions was found to cause more avoidance coping, which resulted in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At this time, the higher level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reduced avoidance response, alleviating the effect on depressio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women, gender microaggressions, coping strategy, controllability, depression